



통섭과 통합

성인경

존경하는 교수, 학생 여러분, 이렇게 성대한 개강 오리엔테이션에서 부족한 저에게 기독교세계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학문방법론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오늘 성경적인 학문 방법론인 통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장, 단점을 먼저 살펴 본 후에 통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용어와 개념의 혼돈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정리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천재 학자 이어령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의 시대이다. 이제 어느 것 하나만 잘 하는 것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앞으로 지식 사회를 선도해갈 인재들은 전문가들이 간과한 지식 대통합을 통해 분야를 넘나드는 창조적 사고를 해야 한다.”²⁾ 그러나 과연 그 분이 말한 “대통합”이 성경적 통합을 의미 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합”이나, 요즘 유행하는 “통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공부 방법론의 혁명

저는 한국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이신 이어령 박사가 기독교인이 되신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말하는 통합은 헤겔이 말하는 “종합(synthesis)”이 아닌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아직 성경적인 “통합(integration)”이 익숙한 상태는 아닐테니, 아마 오늘날 유행하는 “통섭(consilience)”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동양에서 유행한 융합적 방법론(融合的 研究, harmonic studies)은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마치 아주 ‘야채 죽’을 끓이는 것과 같은데 여러 가지를 조화하여 균형을 찾는 것인데, 문제는 그 속에 무엇인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비우라.”, “내려놓는다.” “복 받으세요.”란 말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원이 불확실하며 그 내용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방법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되었습니다. 7세기 신라의 원효 스님(元曉, 617-686)이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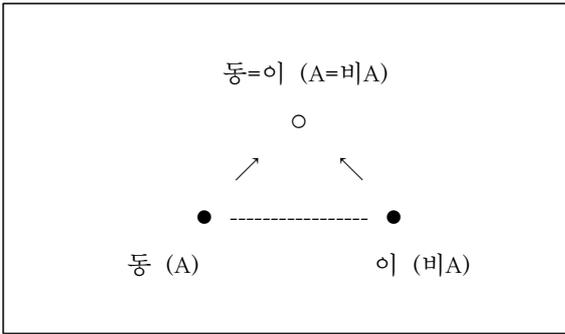
1)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오리엔테이션 특강

2) 로버트 & 미셸 루트벤스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역, 예코의 서재, 9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한 “화쟁논리(和諍論理)”라는 것이 있는데, 융합적 연구방법론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쟁논리는 서로 반대되거나 반정립적인 개념을 하나로 조화하고 융합하는 논리인데, ‘동이(同異)’, 즉 ‘같음과 다름’에 대한 원효의 논리가 그 예입니다.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다 같은 것이라 하면 자기 속에서 서로 다투게 될 것이고,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다른 것이라 하면 그들과 서로 다투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해야 한다. 같은 것이 아니라 함은 말 그대로 모두 부정하기 때문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함은 뜻을 밝히어 긍정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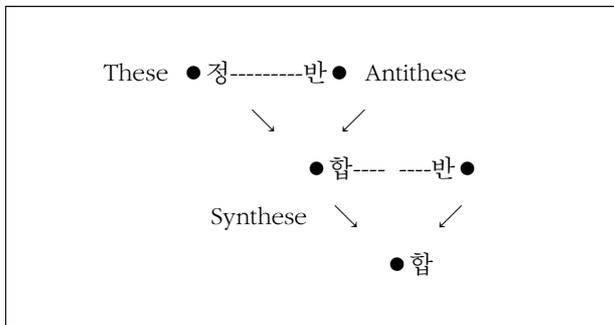


이것을 최민홍 교수가 선문답 식으로 풀어 보았습니다. “결국 같음이란 같은 것을 다름에서 분별하고 다름이란 다른 것을 같음에서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름과 같음을 분별하고 밝히는 것은 다름을 쪼개거나 같음을 없애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음은 다름을 없애지 않으므로 같음이라 할 수 없고 다름은 같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므로 다름이라 할 수 없을 뿐이다. 다만 다르

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음이라 할 수 있고 같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다름이라 할 뿐이다.”³⁾

이 방법은 조화와 균형을 기초로 하며, 어떤 것이든지 서로 어울리게 하거나 일치되는 하는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논리적이라는 비난을 받곤 하는데, 김하태는 말하기를, “이것은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이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즉 논리 저 건너편의 논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없고, 선악구분(善惡區分) 혹은 진위분별(眞僞分別)이 잘 안 되고, 지식의 근원이 불투명한 것이 문제입니다.

(2) 모든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종합적 연구(綜合的 研究, synthetical studies) 혹은 변증법(dialectics)은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 방법은 헤겔(Georg W. F. Hegel, 1770-1831, 독일의 철학자)의 역사철학인 변증법에 근거한 것인데, 사람들이 역사를 반정립적인 대립의 관계로 보는 것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 해결책으로 역사의 세 단계, 즉 ‘정립(These)’과 ‘반정립(Antithese)’을 거쳐 마침내 ‘종합(Synthese)’에 이르는 주기적인 운동으로 보자고 말한 데서 그 근원을 찾습니다. 헤겔은 첫째 단계에서 이성이 우주와 인간의 실재에 대한 의의를 어떤 정설로 요약하고 결론짓는다면(정), 둘째 단계에서 처음에 내세워진 정설에 대한 비판과 회의를 시도하며(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의 부분적 이해와 부정적 비판을 종합하여 실재에 대한 보다 큰 부분을 파악한다고 보았습니다.(합) 이 때 정립과 반정립의 부분적 진리들은 모두 종합 속에 보존되어 보다 전체적인 것으로 합체되며, 이러한 주기적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⁴⁾



3) 최민홍, 한철학-한민족의 정신적 뿌리, 성문사, 23-39

4) S. P. Lamprecht, 서양철학사, 을지문화사, 550-552

종합적인 방법은 “수해종합대책”과 같이 다수의 공익을 찾는 데는 좋은 방법이나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소수 의견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프란시스 웨퍼는 그것을 두고 “헤겔이 두 가지 철학사적 파울을 범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헤겔은 절대적인 이성주의자로서 인식론의 혁명을 통해 철학사의 게임의 규칙을 두 가지 어겼는데, 첫 번째 파울은 진리는 절대적이라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 파울은 진리를 아는 방법으로서 경험을 폐기하고 이성만을 택한 것이다.”⁵⁾ 웨퍼는 절대적 진리가 사라진 이 시점을 일컬어 “절망의 선(The line of despair)”이라고 이름을 붙인 바 있습니다. 이 방법론에서는 종합을 통해 다수와 공익을 추구하지만 반정립적인(antithetical) 진리 혹은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지식의 통일성도 찾기 힘듭니다.

(3) “전공”이라는 이름 하에 유행하는 “분석적 연구(分析的 研究, analytic studies)”는 지성의 전당에서는 가장 힘 있는 방법론으로 통합니다. 전공 혹은 분석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는 현재의 교육 체제 아래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기 힘들며, 아마 이 방법론이 없이는 거의 모든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한 편의 논문도 나올 수 없으며, 어떤 학위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학계의 지배적인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한 우물을 파라.”는 말처럼 한 가지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으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의 맹점이 몇 가지 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맹점은 한 분야에 대해 매우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도 “전문인” 혹은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꼬끼리 뒷다리 하나만 연구하고도 꼬끼리를 다 아는 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맹점은 그런 단편적이고 편협한 지식으로 다른 분야를 속단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혹 더 큰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자기 전공 외의 다른 분야와는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않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4) 분석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복수 전공”이란 이름으로 시행된 학제간 연구(學制間 研究, inter-disciplinary studies)입니다. 이 방법은 아직 많은 대학이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대학들이 좋은 학생들을 많이 모으려는 욕심과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주고 한 가지만 전공하기보다 여러 가지를 배워서 나중에 직장에 취직할 때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싶어 하는 충동과 맞물려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법으로 통합니다. 예를 들어, 주 전공은 생물학인데 부 전공으로 심리학을 듣거나, 주 전공은 IT 분야인데 경영학을 부 전공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학생은 경제학을 주 전공으로 하고 정치외교학을 부 전공으로 선택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매우 더문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꼬끼리 뒷다리와 앞다리와 둘 다 연구하면 꼬끼리 뒷다리 하나만 연구 하는 것보다는 넓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사한 관계 학문 간에 혹은 유관 학문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도는 좋았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 현재의 평가입니다. 한국에서 진화론과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서울대 최재천 교수의 말에 의하면, “복수전공으로

5) 성인경 편, 프란시스 웨퍼 읽기, 예영, pp. 241-5

관계학 발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지적유희로 끝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가끔은 주 전공과 부 전공이 둘 다 부실한 경우도 있고, 부 전공이 주 전공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어떤 경우에는 주 전공은 인정되나 부 전공은 걸치레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수 전공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5)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다각도로 연구하려는 다학문 연구(多學問 研究, multi-disciplinary studies)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꼬끼리 앞다리, 뒷다리만 아니라 코와 눈과 입 등 여러 가지를 유기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시도입니다. 요즘은 “르네상스적 인간” 혹은 “멀티 지식인”이란 말로 전공을 3 - 5 가지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양 라브리까지 기독교세계관을 공부해온 카이스트 교수 이은정 박사는 “학문적 성취나 노벨상을 바라보려면 복수전공으로는 모자라며 이제는 다수전공을 해야 한다.”고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요즘도 복수 전공을 하고도 다른 전공을 찾는 신세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평생 동안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이상의 커리어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방법의 최대 강점은 여러 학문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론자(generalist)”라는 소리를 들은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욕을 얻어먹은 것처럼, “얕팍한 실력”, “제대로 모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나아약대학의 루제저(Ronald W. Ruesegger)는 “쉐퍼가 ‘헤겔은 생각하는 것은 본질상 변증법적이라고 믿은 절대적인 이상주의자(an absolute idealist)였다.’는 말은 맞으나 헤겔 이전에도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거나 칸트(Kant)도 실제 자체는 생각의 산물이라는 절대적 이상주의가 사라지지 않았다.”⁶⁾며 호된 비판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6) 최근에는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모든 학문을 일관된 이론의 실로 꿰매어 보자는 통섭적 혹은 범학문적(凡學問的 研究, trans-disciplinary studies), 혹은 통섭(consilience)”을 시도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학문적으로 제안한 사람은 하버드대학교의 윌슨입니다. 그러나 본래 “통섭(consilience)”이라는 말은 영국의 자연철학자 휴얼(William Whewell)이 ‘학문 간의 넘다듬을 도모하자.’는 말로 쓴 것인데, 통섭은 학문 간의 소통만 아니라 ‘함께 솟구침(jumping together)’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⁷⁾ 윌슨과 최재천은 다윈의 적자생존과 자연선택 이론도 생물학 연구에서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맬더스(Malthus, Thomas Robert(1766-1834)의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기근 · 빈곤 · 악덕이 발생한다.’는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처럼, 다른 학문과의 넘다듬 혹은 함께 솟구침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일관되게 연결해 본다는 것은 대범한 도전이기는 하나 각 영역 마다 갖고 있는 독특성과 고유성이 파괴되거나 희석될 우려가 높으며, 특히 그들이 제안하는 ‘꿰매는 실’이 문제라고

6) Ronald W. Ruesegger, Reflections on Francis Schaeffer, 115-118. cf. 홍치모, ‘프란시스 쉐퍼의 사상’(신학지남, 1984. p.81).

7) Edward O. Wilson, 통섭(Consilience), 최재천, 장대익 역, 사이언스북스, 21. 본래 ‘consilience’라는 말은 영국의 자연철학자 휴얼(William Whewell)이 학문 간의 넘다듬을 도모하자는 말로 쓴 것인데, ‘함께 솟구침(jumping together)’이란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한다.(cf. 최재천, 통섭의 식탁, 명진출판, 11)

생각합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실’은 경제논리, 복지, 행복, 등 매우 현실적이고 시의 적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합적 진리나 근접성의 진리를 찾던 이전의 방법론보다 훨씬 융합적이고 개인화되고 사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섭이라는 말이 어렵고 대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융합” 혹은 “융합적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대융합연구소, 삼성융합연구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융합은 불교적 용어로서 선과 악, 쾌락과 극기 사이에서 찾아내는 다분히 중용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의 연구방법론의 기초와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기초	장단점
융합적 연구	조화, 균형	조화와 일치 추구, 진위구별이 안 됨
종합적 연구	공익, 다수	다수이익 추구, 상대적 진리 추구
분석적 연구	영역 특성	각 영역 발전, 편협된 진리 추구 우려
학제적 연구	영역간의 관계	지식교류 원할, 저적 유희로 끝날 우려
다학문 연구	유사성	통시적 시각 제공, 근접성의 진리 추구
통섭적 연구	탈 경계	범학문적 요구에 부응, 사적인 진리 추구

2. 성경적 통합 연구 방법론

그러면 이런 연구방법론들과 성경이 말하는 통합적 연구방법론은 무엇이 다를까요? ‘통합’⁸⁾은 모든 지식을 성경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에베소서 4:13) 혹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고린도후서 10:4-5)을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 “하나 되게(to reach unity, to unify).”라는 말은 ‘통합하다’ 혹은 ‘통일시키다.’ ‘연합하다.’는 말인데, 관례상 ‘통합(integration)’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⁹⁾ 통합적 연구 방법론의 원리는 고린도후서 10:4-6에 더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저의 책 [진리는 살아있다¹⁰⁾]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그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경의 진리성을 모든 연구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based on the Biblical truth)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종교 계율이 아니라 진리이며 세계관적인 지적 체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4에서 성경을 “영적 무기” 혹은 “강력(強力)”이라고 합니다. “강력”이라는 말은 표준 새번역에서는 ‘강한 무기’라고 번역된 것인데, 원래 그리스 권에서는 제우스 신이나 최고

8) 요즘 ‘통합민주당’이니 ‘통합진보당’이니 하는 정당 명칭에서 보듯이 ‘통합’이란 말이 정치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1)철학적으로는 보편적인 원칙과 진리에 근거한 정신적 통합이 없이 제도적인 혹은 정치적인 통합을 하나된 것이라고 오용할 수 있으며, 2)비 기독교인들이 통합의 의미를 제도적 혹은 정치적으로 하나된 것으로 오용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독교인들이 통합을 영적인 혹은 정신적 통합으로만 오해하는 것이다.

9) ‘통합(integration)’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다른 단어로 표현 되어 있다. 1)부부가 ‘한 몸’이 되라(마태복음 19:6; 마가복음 10:9), 2)하나님과 성도가 영적으로 ‘연합’하라(로마서 6:5), 3)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로마서 12:5; 고린도전서 12:12), 4)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라(에베소서 4:13, 요한복음 17:11-22)는 말씀에 나타나는 말이다.

10) 성인경, 진리는 살아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통치자에게나 있는 '신성한 능력(divine power)'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성이나 체험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달구어낸 칼이기 때문에 “건고한 진” 즉 어떠한 잘못된 사상의 거점도 파괴할 수 있고 심령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는 비수와 같습니다.(디모데후서 3:15-17) 통합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 할 수 있는 성경 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바른 설명과 대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며 내적 체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진리이고 절대적이며 일체의 오류가 없는 정확한 정보이며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라고 믿습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런 성경관을 세계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진리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성경은 참된 진리이다.(true truth), 2)성경은 명제적 진리이다.(propositional truth), 3)성경은 절대적 진리이다(absolute truth), 4)성경은 현실적 진리이다(realistic truth), 5)성경은 인식 가능한 진리이다(knowable truth), 6)성경은 자유케 하는 진리이다 liberating truth).

(2) 비성경적인 사상은 사랑으로 비판해야 합니다.(confrontation every arguments with love) 어떤 기독교인들은 학문적인 대결을 기독교적인 사랑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대결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라.”(고린도후서 10:5)는 말은 비진리를 적극적으로 대결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파한다(demolish)”는 말은 ‘가루로 만든다.’, ‘박살낸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밀하게 비판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 잘못을 분명하게 가려내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진리와 대결하지 않으면 비진리가 진리를 잠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¹¹⁾

그러나 대결을 할 때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무조건 공격하면 안 됩니다. 무대결(no confrontation)도 문제이고, 사랑이 없는 대결(confrontation without love)도 원수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speaking the truth in love, confrontation with love).”(에베소서 4:15)고 부탁했습니다. 사랑으로 대결한다는 것은 모든 사상의 진위(眞僞)를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며, 그 후에야 수용과 폐기 그리고 복종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비판할 때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예술성 인정(aesthetics and creativity), 2)기술성 평가(technique and skill), 3)사상성 비판(philosophy and worldview), 4)도덕성 평가(ethics and morality), 5)종교성 검토(religious reality & spirituality).

(3) 무엇이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critically accept good things from anybody) 대결만 하고 수용을 할 줄 모른다면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에게 “모든 이론을 사로잡으라(take captive every thought).”(고린도후서 10:5)고 하는 말을 잊지 않았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배우고 수용할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어 배울 것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악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전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요. 무신론자나 비기독교인, 혹은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학설이나 이론이라도 성경과 부합하는 것이 있다면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11) 역사적으로 고린도교회가 직면했던 세계관적인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1)교회 안에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하며 파당주의가 생긴 것과 2)각종 은사에 대한 우열논쟁이 생긴 은사주의가 준동한 것과 3)계모를 성폭행 한 놈이 있었으나 징계하지 않았고 동성애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쾌락주의를 방치한 것 등으로 보인다.

수용의 역사적 예를 몇 가지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을 때, ‘바다’ 주조법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로와 히람으로부터 기술자를 사와서 만들었습니다. 2)바울 사도는 흔히 세속적이라고 하는 ‘구속(redemption)’과 같은 상업용어, ‘칭의(justification)’와 같은 법률용어, ‘말씀(로고스, Logos)’과 같은 철학용어를 빌려 왔습니다. 3)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가요 사회개혁가였던 칼빈(John Calvin)은 “플라톤에게서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플라톤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4)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building an integrate system of knowledge) 통합의 최종 목적은 모든 사상과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종시킨다(make it(thought) obedient to Christ)”는 것은, 마치 옛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적장의 목을 발등상 혹은 발판으로 삼고 무릎을 꿇게 했듯이,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비판, 수용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며, 학문과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무릎을 꿇게 하여 기독교인 사상 체계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¹²⁾ 그러나 통합을 오해하여 모든 것을 기독교화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합이 무엇인가보다는 반대로 “성경적인 통합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1년 강원교사대회에서 ‘행복한수업만들기운동’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일한, 김태현 교사가 학교 현장의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여기에 소개합니다. 1)“성경공부, 예배, 기도를 교육과정에 첨가하는 것(채플), 2)기독교 교리나 신조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미션 스쿨에서), 3)성경의 인물, 사건, 진리들을 어떤 학습지도안에 있는 개념 또는 사건에 인용하거나 더하는 것, 4)교과내용을 탈 세속화하려고 성경구절, 사실 또는 사건을 인용하거나 더하는 것, 5)어떤 특정개념을 증명하기 위해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구절을 뽑아 개념이나 내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 6)성경을 성경공부가 아닌 교과목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는 것, 7)학급 경영이나 수업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8)인본주의 교사들과는 다른 탁월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9)삶에 도움이 될

12) 통합 작업에는 성경에 기초한 고도의 영성과 상상력 그리고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데, 단순하게 말하면 학문의 원리와 신학의 원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먼저 학문의 원리에는 연구하는 주체인 인(人), 연구 대상인 물(物), 그리고 연구 근본이 되는 신(神)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신학의 원리에는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근본 원리, 성령의 내적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외적 원리가 그것이다. 신학의 원리들은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과 지식간의 갈등과 대립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일하고 정확하고 통일적인 지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지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학문의 원리</i>	<i>신학의 원리</i>
내적 원리: 인간(경험, 이성)	• 성령
외적 원리: 만물(세상, 자연)	• 성경
<hr/>	
근본 원리: 종교(경배, 영성)	• 신앙

만한 인성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기독교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5) 기독교 세계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practice the knowledge in daily life) 실천 혹은 “순종” 하지 않고는, 아무리 정교한 이론이나 논리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고린도후서 10:5-6)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순종하는 습관이 길 들여져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계관을 공부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을 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나는 이 무기를 써서 맨 먼저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시킨 다음 나머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고린도후서 10:5)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이해한다면 진리가 요구하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가 믿는 세계관의 논리적 결론이 무엇인지 망각한다면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한3서 1:4)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1)“세계관 공부하는 놈들은 말만 많고 헌신은 안 하는 놈들이다.” 2)“세계관을 공부해 보았으나 일상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와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 3)“세계관 공부는 엘리트들의 지식놀음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다.”

맺는 말씀

저는 대학생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궁하면 루이스(C. S. Lewis)와 쉐퍼(F. A. Schaeffer), 정약용, 손봉호 등의 옷장을 자주 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우리 앞서서 지식의 대통합을 시도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세기에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통합적으로 연구한 우리가 딛고 설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들과 후배들은 누구의 어깨를 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식의 대통합을 추구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한 그 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데올로기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그 날까지, 성도들과 학생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날까지, 성경 위에서 지식의 대통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자들과 후배들에게 성경을 기초한 통합적 사고방식으로 단련된 어깨를 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